

식민지시기 염상섭 장편소설의 총체적 도시 재현

유 인 혁*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시기 염상섭 소설이 재현하고 있는 도시 이미지의 총체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상섭은 서울 토박이 작가로서, 경성 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설을 다수 남겼다. 『사랑과 죄』, 『광분』, 『삼대』, 『무화과』 등의 장편소설은 경성 전역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공간의 입체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염상섭은 인종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심상지리를 넘어 실제적인 경성 이미지를 그렸다. 그는 일본인 거주지역인 ‘남촌’, 조선인 거주지역인 ‘북촌’이라는 공간분할에 매이지 않고, 북촌 속에 존재하는 일본인, 그리고 남촌 속에 존재하는 조선인 등(심상지리적 차원에서) 타자의 공간에 진입한 인물들을 묘사했다. 이를 통해 경성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복잡성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었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염상섭, 도시 이미지, 총체성, 문학지리, 이중도시, 심상지리, 계급, 사회적 공간, 도시 공간

Yeom Sang Seob, city image, totality, literary geography, dual city, imaginative geography, class, social space, city space

그리고 염상섭은 서로 다른 두 계급을 연애관계를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적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포착했다. 그는 계급적인 격차를 지리적인 거리로 환산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때 계급적·신분적인 격차를 지닌 연인들은,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즉 염상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계급을 연결시킴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적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를 통해 염상섭은 도시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는 염상섭이 도시의 여러 장소들을 더 많이, 더 빈번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염상섭은 도시의 일부, 혹은 파편(fragment)을 넘어서, 도시의 총체성(totality)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지도를 활용하는 문학지리(literary geography)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도록 하겠다.

1. 불완전한 도시 이미지

이 글은 식민지시기 염상섭 소설이 재현하고 있는 도시 이미지의 총체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염상섭은 서울 토박이 작가로서,

1)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염상섭 작품의 저본은 다음과 같다.

- ①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29년 10월 3일~1930년 8월 2일.; 염상섭(1996), 『광분』, 프레스21.
- ② 염상섭, 『삼대』, 『조선일보』, 1931년 1월 1일~1931년 9월 17일.; 염상섭(2004), 『삼대』, 문학과지성사.
염상섭(1947), 『삼대』, 을유문화사; 염상섭(1987), 『삼대』, 민음사.
- ③ 염상섭, 『무화과』, 『매일신보』 1931년 11월 13일~1932년 11월 12일.; 염상섭(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 ④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년 8월 15일~1928년 5월 4일.; 염상섭(1987), 『사랑과 죄』, 민음사.
- ⑤ 염상섭, 『이십』, 『매일신보』, 1928년 10월 22일~1929년 4월 24일.; 염상섭(1987), 『이십』, 민음사.
- ⑥ 염상섭, 『백구』, 『조선중앙일보』 1932년 11월 1일~1933년 3월 31일.; 염상섭(1987), 『백구』, 민음사.
- ⑦ 염상섭, 『불연속선』, 『매일신보』, 1936년 5월 18일~1936년 12월 30일.; 염상섭

경성 도시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설을 다수 남겼다. 『사랑과 죄』, 『광분』, 『삼대』, 『무화과』 등의 장편소설은 경성 전역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공간의 입체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염상섭이 도시의 여러 장소들을 더 많이, 더 빈번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염상섭은 도시의 일부, 혹은 파편(fragment)을 넘어서, 도시의 총체성(totality)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지도를 활용하는 문학지리(literary geography)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도록 하겠다.

‘도시 이미지’(city image)는 케빈 린치(Kevin Lynch)의 용어로, 시민이 도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는 보스턴, 뉴저지, 로스 엔젤레스 등의 시민에게 각각 도시의 절절점(node), 경계(edge), 도로(path), 랜드마크(landmark), 지역(district)을 포함하는 간략한 지도를 그리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시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도시의 구조, 패턴, 나아가 도시환경의 정체성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케빈 린치는 도시를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단일한(homogeneous)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린치에 따르면 “모든 인간들은 자신만의 (도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간직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동체의 인원들에게 광범위하게 동의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²⁾ 즉 도시 이미지는 공동체적인 집단의를 반영하고 있다. 케빈 린치의 핵심적 용어인 가독성(legibility)은, 그가 도시의 단일한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이 용어는 도시를 마치 책처럼 내용이 고정된 텍

(1997), 『불연속선』, 프레스21.

2) “Each individual creates and bears his own image, but there seems to be substantial agreement among members of the same group.” Lynch, Kevin (1959),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p. 7.

스트로 상상하게 만든다. 즉 우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상상 가능하고 그것을 시각화할 수도 있지만,³⁾ 결국 그 물적 토대를 벗어나 도시를 읽을 수 없다.

이는 도시환경을 계획하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특히 옳은 명제이다. 그는 도시공간의 구조에서 혼란을 제거하고자 한다. 통일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어 한다. 혼란스럽고 무규칙적인 가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든다. 반대로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는 경관은 도시에서 개성을 앗아간다. 너무 무질서하거나, 혹은 너무 몰개성적일 때, 공간은 편안하지 않은(unhomely) 상태가 된다. 도시가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알아보기 쉽고도 이해하기 쉬워서, 안전하고 편안한 감각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도시의 가독성’이라는 개념은 살기 좋은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가독성 있는 도시, 단일한 도시의 이미지는 일종의 이상형이다. 이는 현실의 모든 도시들이 응당 갖추고 있는 자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 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뒤르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의 진화 발전은 단순한 사회 형태에서 복잡한 사회 형태로 이행한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과 영토는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므로, 복잡한 ‘사회적 형태’의 표현으로서 도시공간은 마찬가지로 복잡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적 분화의 고도화 및 복잡화, 이 “멈추어지지 않는 확장은 개인의 방향 설정을 하기 힘들게 만든다.”⁴⁾

복잡한 도시. 이것이 바로 근대도시의 조건이다. 지도의 보급은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들이 같은 의미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누군가에게 화려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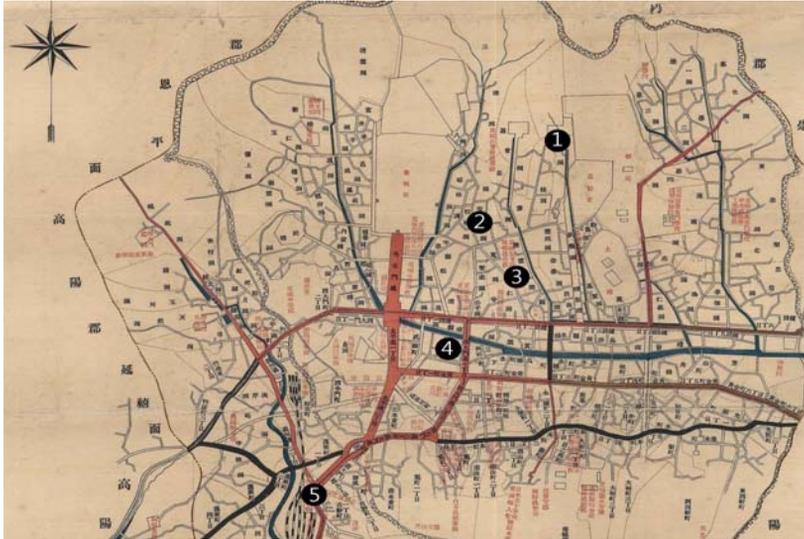
3) 케빈 린치는 이를 각각 상상가능성(imageability), 시각화가능성(visibility)이라 칭했다.

4) 마르쿠스 슈뢰르(2010),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예코리브르, pp. 58-65.

점가는 산책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감생심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일 수도 있다. 반대로 도시 외곽의 빈민가는 유산계급의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를 알고 있을 뿐, 자신들의 도시로 인식되지 않는 공간일 수 있다. 요컨대 고도로 분화된 도시 사회에서 개인은 분절되어 있는 파편 속에 머문다. 도시 내부에 다양한 분할이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관측점이 있다는 사실은 도시 이미지가 ‘복수’일 수 있으며, 관측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때 ‘전체’를 조망하고 경험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⁵⁾

식민지시기 소설을 통해서 당시 도시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 역시 도시의 불완전한 이미지다. 아래, 한국 근대소설의 시초로 평가되는 『무정』의 지도가 있다.

5) 데이비드 하비는 케빈 린치의 ‘개인’이 지나는 도시 이미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형적 보스턴 주민은 정해진 길을 따라 한 점 혹은 결절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한다. (...)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 물리적 공간 중 접해 보지 못하고, 사실 알지 못하는 광대한 지역을 남겨 두게 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에게 도시 내부의 다양한 분할은 중요하게 주목된다. 즉 “사회적으로 고찰된 공간 구조에는 강한 단절”이 존재하며, “집단의 사회학적 특성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이한 집단 행동이 있으며, 다소 다른 도시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공간에서의 서로 다른 경험은 “상상으로 작성된 멘탈맵이나 혹은 공간 형태의 속성을 수정하고 확장”시킨다(데이비드 하비(1983), 최병두 옮김,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pp. 17-19).



| | | | | |
|-----------------|------------------|------------------|-------------------|----------------------|
| ① 경성학교 (원사동) | ② 김장로의 집 (안동) | ③ 이형식의 집 (교동) | ④ 박영채의 집 (다육정) | ⑤ 남대문 정거장 (舊 서울역) |
|-----------------|------------------|------------------|-------------------|----------------------|

〈그림 1〉 『무정』의 장소들

위 지도는 『무정』 중 경성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장소들을 검은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1917년에 발행된 『경성부관내도』를 사용했다.⁶⁾ 지도의 상단에서부터 경성학교,⁷⁾ 김장로의 집, 이형식의 하숙집, 박영채의 집,

6) 『경성부관내도』(『京城府管內圖』, 『京城府府勢一般』, 1917年, 1:16,000, 78.4×54.3cm, 서16065) 중 경성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해 사용했다. 서울 GIS 포털 시스템 (gis.seoul.go.kr)에서 제공하는 그림파일을 이용했다.

7) 경성학교는 가상의 학교이기에 위치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주가 귀족이라는 점 때문에 민영휘에 의해 창립된 휘문고보가 모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성학교의 기숙사가 안동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근접한 화동의 경성고등보통학교(현 정독도서관 자리)가 모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 경성학교는 휘문고보, 경성고보의 명칭과 위치, 이력이 허구적으로 뒤섞인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교주가 귀족이라는 점을 더 주목하여 경성학교를 원서동으로 위치시켰다. 하지만 화동 경성고보가 경성학교의 모델인 것으로 가정할 때,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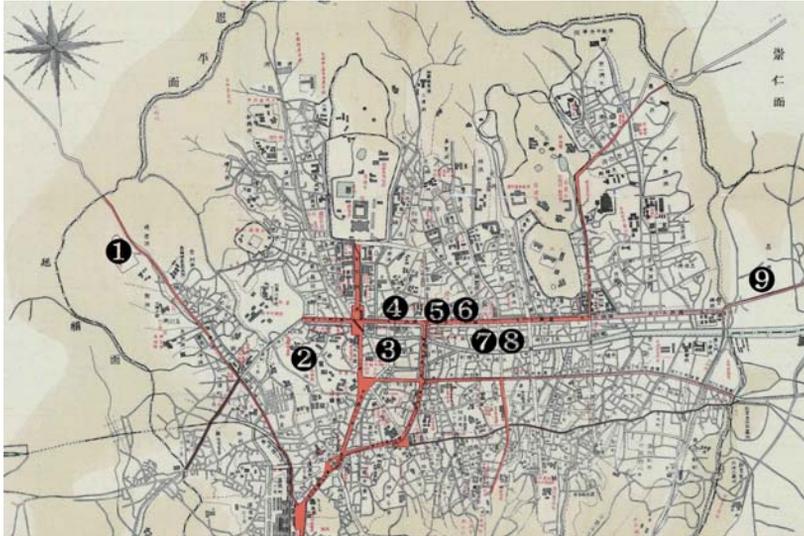
남대문역이다. 영채가 강간을 당하는 청량사의 경우, 본래 한성부 동부 인창방 청량리계에 있었으나,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가 되었으므로 경성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⁸⁾

여기서 우리는 이광수가 경성의 지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복궁 서쪽 및 청계천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역, 그리고 경성의 동부 전체가 보이지 않는 도시공간으로 남았다. 영채를 찾아 다방골에 찾아갈 때를 제외하면, 이형식의 활동은 경복궁 동쪽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형식이 경험하는 것이 전체(whole)로서의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시의 일부이다.

이것은 소설의 볼륨과 함께 공간적 활용 양상이 확장되었던 『재생』(1924)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점들이 인접하게 분포된다는 사실을 부연하고자 한다. 즉 『무정』의 지도는 더 작아지게 된다.

8) 청량리의 관할에 대한 문제는 『서울지명사전』(편집부(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을 참조.



- | | | |
|----------------|---------------|------------------|
| ① 서대문 형무소(현저동) | ② 이화여전(정동) | ③ 신봉구의 집(무교동) |
| ④ 김순홍의 집(청진동) | ⑤ 경성지방법원(공평동) | ⑥ 청년회관(종로2정동) |
| ⑦ 김순기의 집(관철동) | ⑧ 백윤희의 집(관수동) | ⑨ 백윤희의 별장(동대문 밖) |

〈그림 2〉 『재생』의 장소들⁹⁾

등장인물의 증가, 플롯의 복잡화에 따라 소설의 장소들도 다양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도에는 검은 점이 찍혀 있는 영역보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공간이 더 크다. 여전히 경복궁 서쪽의 서촌지역과 청계천 이남의 ‘남촌’, 즉 일본인 거주지역이 소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경성부관내도』(『京城府管內圖』, 1927年, 1:15,000 78.5×54.8cm, 서13645) 중 경성 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해 사용했다. 서울 GIS 포털 시스템(gis.seoul.go.kr)에서 제공하는 그림파일을 이용했다. 이후에 사용하는 지도는 모두 이 『경성부관내도』를 편집한 것이다. 본래 소설이 발표된 시점과 최대한 유사한 년도에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 이전까지 경성의 행정구역에 대체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27년도의 지도를 계속 사용했음을 밝힌다.

즉 이광수의 초기 장편소설에서 경성은 전체적인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정』과 『재생』이 보여주는 것은 경성의 일부이다.¹⁰⁾ 그리고 그 경성의 일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전형적 인물들이다. 청계천 이북의 ‘북촌’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 정동에 사는 외국인(P부인), 다방골에 사는 기생, 경성 동부에 거대한 별장을 지은 부르주아 계급 등.¹¹⁾ 여기에는 경성의 변두리에 기거하던 도시 빈민들,¹²⁾ 그리고 북미창정이나 남산정 등 청계천 이남에 위치한 일본인 집주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설 속에는 경성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그리고 도시 최하위 계층인 빈민들에 대한 묘사가 부재한다. 즉 이광수는 경성 공간을 전체적으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경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인종, 계급적 차이 등을 과소재현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광수는 도시의 다양한 계층과 다분할된 공간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서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이 글은 여기서 이광수의 과소재현적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광수의 소설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나아가 시각화할 수 있는 경성이 다만 도시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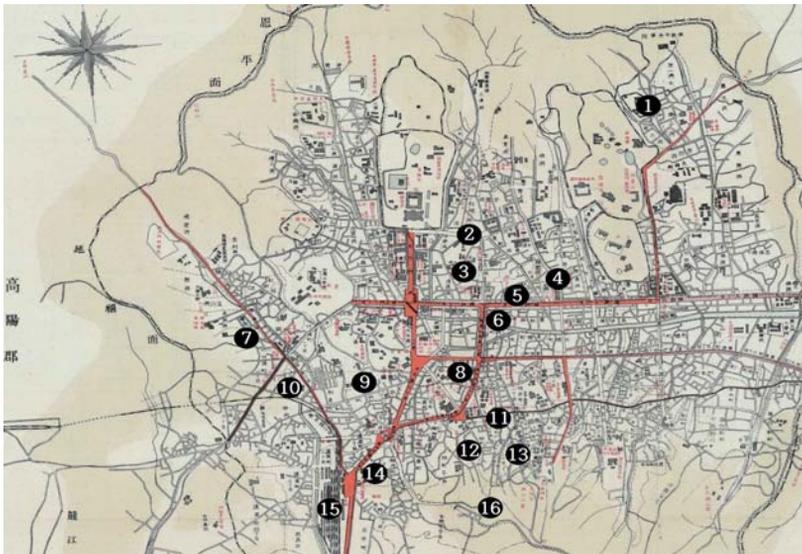
10) 이광수의 ‘작은 경성’은 식민지시기 후반의 장편소설에도 분명히 경향이 이어진다. 『사랑』(1938)과 같은 작품에서 경성은 안빈의 집(삼청동), 안빈의 병원(수송동), 허영의 집(권농동), 석영옥의 집(연지동) 등으로 한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재생』보다도 작은 범위의 경성을 다루고 있다.

11) 1920년대에 동대문 밖 경성 동부 지역은 문화주택지가 개발 되는 등, 신규 고급주택지가 형성되고 있었다(이경아(2009), 『경성 동부 문화주택지 개발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37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2) 강만길에 따르면 1927년 현재 경성의 토막민 중 1/4에 해당하는 169호가 신당리에 살고 있었다. 즉 경성부의 경계 지역에 대부분의 도시빈민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서대문 근처의 죽점정, 서대문 바깥의 냉동에도 상당 수의 토막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p. 246). 이보영은 경성의 “변두리 지역은 변혁사상이 태동하고 잠복하는 위험지역”이라 설명하는 가운데, 『삼대』의 이필순이 살고 있는 홍파동, 『무화과』의 김봉익이 살고 있는 삼청동 막바지의 산사 등을 ‘성 안팎의 빈민촌’으로 거론했다(이보영(2001),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p. 267).

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시 경험 및 우리가 재구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부터 분석할 업상섭의 장편소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경성을 전체적으로 재현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2. 식민도시의 종합적 재현



- | | | |
|-----------------|--------------------|------------------|
| ① XX원(명륜동) | ② 벽동대감의 집(벽동) | ③ 김호연 사무실(수송동) |
| ④ 류택수의 집(교동) | ⑤ 청년회관(종로2정목) | ⑥ 사초전골(광교 부근 추정) |
| ⑦ 지순영의 집(냉동) | ⑧ 홍산주식회사(황금정 추정) | |
| ⑨ 이해춘의 집(미근동) | ⑩ 심초매부의 집(서소문정 추정) | |
| ⑪ 진고개 여관(진고개) | ⑫ 요시노관(옥정) | ⑬ 남산정의 카페(남산정) |
| ⑭ 세브란스 병원(남대문동) | ⑮ 경성역(舊 서울역) | ⑯ 조선신궁(남산) |

〈그림 3〉 『사랑과 죄』의 장소들

『사랑과 죄』의 지도에서 시작해보자. 『사랑과 죄』는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로 1927년 8월부터 1928년 5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무정』으로부터 10년, 『재생』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광범위하게 경성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일목요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죄』에서 경성의 도시 공간이 보다 전체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위의 검은 점은 경성의 북서쪽과 남동쪽 정도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전역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계천 이남의 일본인 지역 ‘남촌’이 광범위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시기 소설에서 일본인 및 그들의 공간이 과소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¹³⁾ 이 연구들은 모두 식민도

13) 우선 윤대석은 식민지 상황이 “인종/민족의 잡거를 초래하면서도 철저한 공간분할”을 가져왔음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작가들은 문학의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일본인을 문학의 공간에서 쫓아내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식민자는 식민지인을 계몽하여 문명화한다는 동일화의 사명을 표방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차이화(차별화)에 근거를 둔 지배의 욕망이 작동”하고, 따라서 “식민지에는 식민자가 거주하는 특권적인 공간”이 생겨난다. 하지만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분할 속에서 거꾸로 자신의 인종/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여 근대적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소설의 공간에는 이러한 양상이 선연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윤대석(2006),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호, 국어국문학회, pp. 92-108.

이혜령 역시 “식민지의 이원적 사회구성”이 식민자의 재현을 곤혹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인의 문학적 재현은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의 특정한 맥락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부담을 져야 했다. 3·1 운동의 결과로 얻은 한글매체가 지닌 강력한 동족 사회적 소구성에 기반해 있던 1920~30년대의 문학은 식민자 일본인의 존재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그러한 부담”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혜령(2012), 『식민지는 말해질 수 있는가』, 『대동문화연구』 78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 322.

조은애 또한 “경성의 식민도시화가 집중되었던 1920~30년대의 문학텍스트 속에서 대부분 식민자의 모습이 공백 또는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음”에 동의하면서, “통치권력과 그에 대한 식민지인의 공포·반발이라는 역학관계에 의해 상상된 경성의 공간분할 감각이 (...) 식민자의 표상을 드러내거나 감추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애(2012), 『식민도시의 상징과 잔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집,

시 경성이 식민자의 공간과 피식민자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간분할이 문학 내 도시공간의 재현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식민지시기의 문학에서 일본인이 드물게 재현되고 있는 양상이 이러한 공간분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식민도시 경성이 조선인 구역인 ‘북촌’과 일본인 구역인 ‘남촌’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이른바 ‘이중도시’(dual city)론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식민지시기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원래 역사적으로 조선사람이 사는 북촌과 일본 사람이 사는 남촌의 구별이 있어서 그에 따라 거주하는 행정구역의 명칭도 남촌은 대개 일본식으로 정(町)이나 통(通)으로 되었고, 북촌은 동(洞)이나 리(里)로 되었”¹⁴⁾다는 기록은, 식민지시기에 사람들이 경성을 인종적 기준에 따라 ‘북촌’과 ‘남촌’으로 분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분할은 엄격한 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다. 뒤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것은 상상지리(imaginative geography)적인 것이다. 상상적인 공간분할은 “마음속에서 멋대로 이러한 경계선을 긋는다면 (...) 그 결과 ‘그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이 되고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심리는 ‘우리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나타나게 만드는 힘이다.¹⁵⁾ 요컨대 상상적인 경계가 한번 설정되면, 실제적 지리와는 무관하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상상지리가 문학적으로 적용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무정』과 『재생』의 지도가 아마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은 ‘실제’의 지리를 축소(reduce) 시킨다. 상상지리는 본래 도시가 지니고 있는 복잡함을 소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보다 작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의 경성을 만나게 된다.¹⁶⁾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 458.

14) 『町名으로 전부 變更?』, 『조선일보』 1928년 11월 14일.

15) 에드워드 사이드(2001),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p. 107.



〈그림 4〉 ‘남촌’의 심상지리

여기 두 개의 지도는 모두 ‘남촌’의 영역을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지도는 1923년 중간인(中間人)이 『개벽』에서 정리한 남촌의 영역을 표시했다.¹⁷⁾ 중간인은 일본인이 100호 이상 살고 있는 지역 54개와 조선인이 300호 이상 살고 있는 지역 61개를 각각 남촌과 북촌으로 명명했다. 이 기준은 경성에서 “원래 조선인 호수가 日人の 약 3배인 까닭”에 정해졌다. 이 지도에서 우리는 청계천 남쪽, 그리고 용산의 상당 지역을 검은색이 뒤덮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계천 이북의 원남동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남촌’ 지역에서는 반대로 옥정(旭町)과 봉래정, 남대문통 5정목, 장곡천정이 하얀색으로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1923년에 중간인이 정리한 ‘남/북촌’의 지도는 결코 청계천을 경계로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다 명확한 분할을 보여주는 것은 손정목의 작업을 정리한 지도다.

16) 프랑크 모레티는 영국 소설에서 런던이 전체적으로 재현되지 않고 단지 일부만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며, 이들이 도시의 복잡성(urban complexity)을 축소(reduce)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oretti, Franco (1998), *Atlas of the European Novel*, Verso, pp. 79-83.

17) 중간인, 『외인의 세력으로 觀한 朝鮮人 京城』, 『개벽』 1924년 6월, pp. 48-50.

손정목은 1925년에 실시됐던 총독부 국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남촌을 구분했다. 1923년 인구지도와 비교할 때 검은 영역이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성의 ‘구조’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손정목은 ‘중간인’이 정리한 “54개 정동과 61개 정동을 두고 바로 남촌·북촌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북촌, 남촌을 “일본인이 거주했던 신·구 용산이나 동대문·남대문 밖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이는 당시 경성부가 용산면을 직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경성시가’(京城市街)는 용산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이해할 만한 결정이다.¹⁸⁾ 둘째로 “가구 수(호수) 100호 및 300호 이상이라는 절대수”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 원남동이나 일지출정과 같은 예외가 생긴다고 보았다. 그래서 1925년 국세조사 결과에서, 일본인이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남촌’으로, 조선인이 2/3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북촌’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이 1/3이라는 기준은 당시 경성부의 일본인 비율이 약 1/3이며, “日인이 3분의 1 이상 거주한다면 그들의 우세한 경제력과 간선도로변의 토지점유율로 보아서 사실상에 있어 日人 특세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세워지게 됐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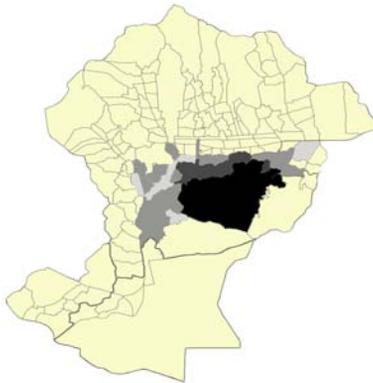
이러한 분류의 결과 손정목의 지도는 1923년 현재 경성을 관찰하고 있는 ‘중간인’보다 더욱 분명하고 간단한 분할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보다 축소된 것이다. 이는 다소 인위적인 결과인데, 우선 손정목은 1/3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준점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인 비율이 20.7%에 불과한 황금정 6

18) 지금까지 활용한 『경성부관내도』는 모두 용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1927년과 1933년에 발행된 두 장의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京城市街圖』, 朝鮮印刷株式會社, 1927; 『京城市街圖』, 朝鮮印刷株式會社, 1933)는 모두 용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19)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p. 373.

정목, 그리고 일본인 비율이 29.1%인 길야정 2정목을 ‘남촌’에 포함시켰다. “3분의 1이 미달되기는 하나 흐름의 계속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²⁰⁾ 거칠게 말해 손정목은 ‘남/북’의 공간분할을 보다 명확히 상상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예컨대 일본인 비율이 34.7%인 남대문통 4정목과 일본인 비율이 98%에 이르는 일지출정은 과연 동일한 남촌으로 볼 수 있는가? 손정목이 정리한 ‘일인 득세지역 한·일 인구비교’표에서 본정 일대는 일본인 비율이 평균 85.1%, 명치정과 병목적 일대는 71.3%, 남산정과 옥정 일대는 88.8%, 남대문통 일대는 54.8%, 태평통 부근은 45.7%, 황금정 일대는 47.3%, 봉래동과 화천정, 길야정 일대는 64.9%인 것으로 나타난다.²¹⁾ ‘남촌’이라는 심상지리를 지도로 표시했을 때, 경성의 남반부는 온통 검은색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 80%에서 40% 사이를 오가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5〉 인구비율에 따른 남촌의 층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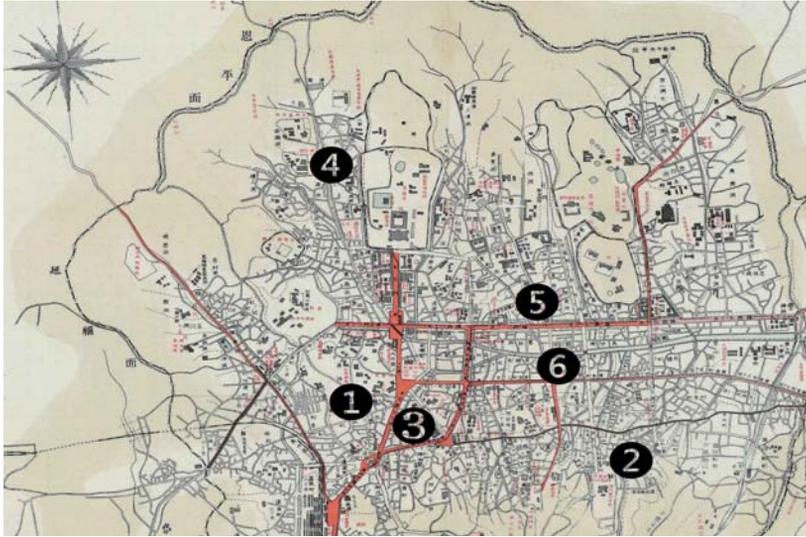
20)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p. 371.

21)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p. 371.

위 지도는 손정목이 정리·계산한 인구비율을 차등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일본인 인구비율이 80-99%에 달하는 곳을 검은색으로, 60-79%, 40-59%, 20-39%를 점차 옅은 회색으로 표시했다. 여기서 우리는 남촌의 인구비율이 균질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흑백의 분할이 남북을 가르는 도시가 아니라, 차이가 층층이 쌓여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다 복잡한 경성의 모습이다.²²⁾

염상섭의 탁월한 점은 이 복잡한 도시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염상섭 소설에서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북촌’과 ‘남촌’으로 명명된 지역에 만 머물지 않는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염상섭 소설에서 전형적인 ‘남촌’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반대로 ‘북촌’에 거주하는 일본인, 마지막으로 ‘남촌’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다.

22) 김종근(김종근(2010),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 48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의 경우, 경성 내부에 존재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을 의미 있게 주목하여, 식민도시 경성이 다양한 인종의 잡거로 구성되어 있는 잡거도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 | |
|--------------------------|---------------------|
| ① 『사랑과 죄』: 심초매부의 집(서소문정) | ② 『이십』: 좌야의 집(대화정) |
| ③ 『삼대』: 홍경애의 집(북미창정) | ④ 『삼대』: 산해진(효자동) |
| ⑤ 『무화과』: 보도나무(인사동) | ⑥ 『무화과』: 조일사진관(수표정) |

〈그림 6〉 인종(ethnic)의 전형·비전형적 분포

우선 ‘남촌’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살펴보자. 심초매부의 집은 서소문정에 위치해 있다.²³⁾ 『이십』의 중요인물인 ‘좌야’가 살고 있는 대

23) 『사랑과 죄』에서 순영은 남대문에서부터 걸어와 대한문을 지나 “W정으로 가는 오인(원)편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조선사람의 집이라고는 없는” 곳이며 “총독부 관리의 관사나 회사원들이 사는 동리”이다(염상섭(1987), 『사랑과 죄』, 민음사, p. 21.). 여기서 우리는 W정이 대한문에서 원편으로 꺾어 들어가는 길에 위치해 있으며, 총독부의 관사와 이웃해 있다는 두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숙(김명숙(2004),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3)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문의 원편으로 화천정과 서소문정에 총독부 관사가 위치해 있었다. 화천정의 일본식 발음은 ‘이즈미마찌’이므로 ‘W정’과 적극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서소문정의 서(西, west)를 따서 ‘W정’이라 명명했을 가능성이 보다 유력하다.

화정의 경우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²⁴⁾ 『사랑과 죄』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1925년 현재 서소문정의 일본인 비율은 50.1%이다.²⁵⁾ 또한 『이심』이 연재되었던 1928년 대화정의 일본인 인구비율은 약 90.3%이다.²⁶⁾ 두 사람 모두 일본인 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일본인 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복촌’의 일본인이다. 『무화과』에서 일본인 여성 마쓰코는 ‘복촌’의 인사동에 위치한 카페 ‘보도나무’에서 일하고 있다. 인사동은 일본인의 비율이 3%²⁷⁾에 지나지 않는 구역이다. 물론 이 통계는 인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마쓰코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불명이다.²⁸⁾ 다만 마쓰코가 전형적인 조선인 구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맛짱은 일너지만, 여기 계집애들은 조선 여자 일본 여자가 반반씩 여남은 있다. 인사동 같은 조선 사람의 변화지지요, 주인도 조선 여자가 혼자 한다가도 하고, 일본 사람 남편이 뒤에 있다고도 하나 그래서 그런지 집 이름부터 ‘버드나무’란 조선말을 ‘보도나무’라고 일본말로 취음을 하여 지었고 조선 계집애들도 양장 아니면 일복을 시켜서 내세웠다. 말은 물론 일본말. 일어 모르는 늙은 오입쟁이가 가도 조선말은 간신히 의사소통이나 될 만큼 반씩반씩 잘라서 아껴 쓴다(밑줄 인용자).²⁹⁾

24) 다만 좌야가 운영하는 패밀리호텔의 위치는 작중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호텔이 있었던 소공동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25)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p. 371.

26) 『경성상업회의소통계연보』 1928년, 경성상업회의소, p. 3.

27) 1928년 현재 총 인구 2278에 일본인은 69명이다. 『경성상업회의소통계연보』 1928년, 경성상업회의소, p. 5.

28) 1932년 현재 종로서 관내의 일본인 여급 중 집에서 통근을 하는 사람은 5명, 카페에서 머무는 사람은 29명 정도였다. 마쓰코 역시 카페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여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카페 美人들의 教育』, 『매일신보』, 1932년 2월 5일).

이 ‘보도나무’는 최원애가 일본인 안달외사의 도움을 얻어 차린 카페다. 일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일본색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니, 이곳은 이름부터가 ‘버드나무’의 일본발음을 취했으며, 일본인 여급이 절반 정도 되고, 조선인 여급들도 양장, 혹은 일본식 복장을 하고 일하고 있다. “조선사람의 변화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 여기서 염상섭은 북촌 속에 존재하는 남촌의 영향력을 포착하고 있다. 인사동은 조선인의 시가(市街)이지만, 이곳에는 식민자인 일본의 문화와 인력이 침투해 있다.

그런데 보도나무는 단지 일본인 및 그들의 자본이 ‘북촌’을 잠식하고 있는 정황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보도나무의 일본인 여급들, 특히 ‘맛짱’은 조선인 지식계급 및 부르주아들에게 술과 웃음을 파는 처지다.³⁰⁾ 즉 그들은 ‘정복자’로서의 식민자를 표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식민자의 공간 곳곳에 유전(流轉)하고 있는 식민(植民)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³¹⁾

즉 염상섭은 마쓰코를 통해 전형적인 일본인 공간 밖에 있는 비전형적인 일본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인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장면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④와 ⑥은 각각 『삼대』의 산해진과 『무화과』의 조일사진관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삼대』에서는 김병화가 일본 반찬가게 ‘좌등상점’을 인수해 산해진을 열었다. 『무화과』에서는 김동국이 수표동에 있는 조일사진관을 인수했다. 이들은 모두 상가라

29) 염상섭(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p. 60.

30) 김윤희에 따르면, 반대로 일본인들이 “조선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남촌보다는 종로 방면의 카페를 이용”했으며 특히 북혜숙은 “여배우 출신으로 일본어도 능통하고 조선의 사정에도 밝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김윤희(2001), 『日帝下 京城地域 카페의 都市文化的 特性』,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2).

31) 1932년 현재 종로서 관내 카페의 수는 16개였으며, 여기서 일하는 여급은 조선인이 66명, 일본인은 통계가 확실하지 않지만 30~40명 정도다. 일본인 여급의 비율이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카페 美人들의 教育』, 『매일신보』, 1932년 2월 5일).

는 표면 아래, ‘주의자’들의 운동기지라고 하는 이면을 숨기고 있다. 산해진은 주의자 김병화가 자신의 정체(正體)를 숨기고 있는 일종의 ‘보호색’으로 표현되고 있거니와, 조일사진관은 폭발성이 있는 ‘모종 극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음모와 테러의 장소이다.

그런데 식민자의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이 장소들은 모두 식민자의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³²⁾ 산해진이 위치한 효자동은 일견 ‘북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경성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대』가 연재되었던 1930년 현재 효자동의 일본인 비율은 19.1%에 도달하고 있었다.³³⁾ 이는 손정목에 의해 남촌으로 분류되었던 황금정 6정목의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더군다나 염상섭은 효자동을 일본인 마을로 변화해가는 공간으로 묘사해놓았다.

전차가 효자동 종점 가까워졌을 때 덕기는 차 속에 일어서서 박람회 통에 일자로 부쩍는 일본 집들을 유심히 보았으나, 산해진이란 간판은 눈에 안 띄었다. 차에서 내려서 되짚어 내려오며 차츰차츰 뒤지다가 좌등상점이란 간판이 붙은 가게의 유리문 안을 기웃해 보니, 과실이 놓이고 움파니 미나리니 하는 것이 눈에 띈다.³⁴⁾

이곳은 1929년에 개최된 경성박람회 이후 빠르게 “일본 사람 촌이 되어가는”³⁵⁾ 곳이었다.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총독부 관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³⁶⁾ 즉, 이미 일본 반찬가게가 들어설 만큼 일본

32) 유인혁과 박광현은 조선적 공간과 일본식 공간의 절합 양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이중적 공간’에, 반식민지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유인혁·박광현(2014),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의 건축과 식민지 도시의 이중성』, 『한국어문학연구』 6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33) 『경성상업회의소통계연보』 1930년, 경성상업회의소, p. 5.

34) 염상섭(2004), 『삼대』, 문학과지성사, p. 481.

35) 염상섭(2004), 『삼대』, 문학과지성사, p. 477.